

도 추경예산 3,820억 편성 올림픽 붐 조성 563억 반영

도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820억원을 편성해 2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중앙지원사업과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성공 개최 준비 등 도정 핵심사업 적기 추진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지난해 폐지한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일 반회계로 전환하고 고금리 지방채 509억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신경을 썼다.

우선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기반 구축, 지방경제 3법 입법 추진, 어려운 농가 지원 등 비상경제 활성화 지원에 1,070억원을 편성했다. 동계올림픽 붐 조성 및 성공 개최 준비에 563억원, 강원FC 활성화, 동해안 군 경제철책 철거 지원, 친환경 급식 확대 등 미래까지 제고와 소득기반 구축에 803억원을 반영했다. 도민의 체감복지 확대와 안심사회 조성에 650억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509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명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등을 조속히 집행해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현기자

올림픽 간선도로망 사업 분할발주 노선 증대 요구

지역 건설업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망 사업이 속도를 낸다. 건설업계는 도내 업체 참여 확대 방안으로 분할발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도 6호선 둔내~장평~간평(45.2km), 국도 31호선 소천~도계2(10.2km) 등 올해 10개 노선의 간선 도로망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올림픽 주요 경기장의 접근도로망 구축사업은 조기 완공이 목표다.

현재 공사 중인 경기장 접근도로망은 국도 6호선은 둔내~장평~간평 구간을 비롯해 강릉 연곡~두능(12.7km) 구간이다. 올해 10월 개통이 목표다.

국도 59호선 평창 막동~마평(3.3km)과 정선 나진~숙암(8km), 숙암~평창 막동(6.7km) 구간도 올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올해 건설이 완료된다.

올림픽 관련 사업 외에도 국도 5호선 춘천~화천(19.7km) 등 9개 사업의 실시설계가 이뤄진다. 또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31.3km) 구간의 기본설계도 예정돼 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도로망 확충사업이 추진되며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이 지난해의 70% 수준에 그칠 전망으로 오히려 지역업체의 몫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노선을 가능한 많이 분할발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할발주를 통해 공사 구간이 늘어나고 공사금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도내 전체 건설 관련 공사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분할발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유운기자

올해 10개 노선 구축사업 추진
예산 70% 그쳐 분할발주 절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드시 필요”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정기총회

도내 경제계가 지난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설악산 오색산도 설치사업에 대해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35개 경제단체 연합체인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이하 강원경단련)는 27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관련 성명서를 채택했다. 강원경단련은 “강원도는 산지가 대부분이어서 산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오색산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보완대책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문제만으로 고사 직전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문하고 있다”며 조속한 재심을 촉구했다.

강원경단련은 도가 오는 6월 베트남에서 개최하는 토털마케팅사업에 경제사절단으로 회원 단체장 20여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현지 글로벌 기업을 방문하고, 도-



◇강원경제인단체협의회(회장: 최준진)는 27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열고 부결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심을 촉구했다. 박승선기자

35개 단체 재심의 촉구 성명
토털마케팅사업 사절단 파견
‘플라이양양’ 설립 협조 요청

호치민 상생협력사업 설명회, 강원도 동남아본부 개소식, 우수 농수산물 식품 판촉전, 강원FC와 베트남 현지 구단의 친선 경기 등에 참석해 도내

기업의 베트남 사업 진출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경제 단체들 간의 교류를 위해 2017 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를 오는 6월19~20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회원 400여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설명회와 농식품산업 개발 방향을 찾는 6차 산업 육성 세미나도 연

내 개최한다. 도는 이날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양양 항공사 설립에 경제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준진 강원경단련 회장은 “지역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내수 침체 속에 경제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be@kwnews.co.kr

강원도 1차 추경 5조944억 편성

역점 사업별 배분 도의회 제출 동계올림픽 준비 563억 배정

강원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5조 944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중앙지원사업과 비상경제 활성화, 동계올림픽 붐 조성 및 성공개최 준비 등 도정 주요 핵심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역점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기반 구축,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지방경제 3법 입법 추진 등 비상경제 활성화 지원에 1070억 원을 투입한다. 또 30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 올림픽 준비를 위해 G-100일 기념 문화 페스티벌, 문화올림픽 개막식, 올림픽경관 및 문화거리 조성 등에 563억원을 배정했다.

강원FC활성화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친환경 급식 확대, 지방도 확포장, 강원도 디자인센터 건립 등 도의 미래가치 제고와 소득증대 기반 구축에도 803억원을 편성했다. 채무제로화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에도 나선다. 2022년 채무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폐지한 체육진흥기금 등으로 마련한 509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사용한다. 백오인



강원경제단체연합회 회원들이 27일 춘천 베어스타운호텔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재심의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강경연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재심의해야”

“통영케이블카 경제효과 연1500억”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필요

강원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최돈진·이하 강경연)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에서 부결된 설악산 오색삭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촉구했다. 강경연은 27일 춘천 베어스타운호텔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열고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재심의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시범사업으로 결정되는 등 경제 파급효과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문화재위원회가

동물·식물·지질·경관 분야의 훼손 문제로 해당 사업의 부결 결정을 내렸다. 강경연은 연간 설악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이 350만명인 점을 근거로, 지역경제 소득을 위해 오색삭도사업 재심의를 촉구했다. 최돈진 회장은 “논란이 거셌던 통영케이블카도 연간 1500억원의 경제적 효과 가져다 주고 있다”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속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연은 이날 양양국제공항에서 신규 항공사 설립을 추진중인 플라이양양(주)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요청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건설사 인력구조 급속히 재편

토목·플랜트 줄고 건축·주택은 늘고

19개사 사업부문별 조직 분석

인력 재배치에 '업황' 그대로 반영
간부비율 높은 '역피라미드형' 심화

건설업계 만형 격인 현대건설은 주택 경기 호황에 힘입어 최근 1년 새 건축 부문 직원을 260명 넘게 늘렸다. 대신 인프라·환경과 플랜트, 전력 부문은 그만큼 줄었다. 특히 최근 실적이 부진한 플랜트 부문에선 215명(15%)을 감축했다. 다만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내부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을 썼다.

건설업계가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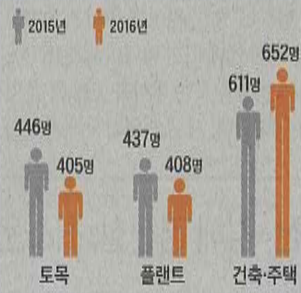
27일 건설업인사관리자협의회(건인회)가 2015~2016년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20위권 내 9개사를 포함해 총 19개사의 사업부문별 인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1년 간 토목과 플랜트 부문의 직원이 감소한 반면 건축·주택 부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개사의 평균 직원 수는 1971명. 이 중 토목(446명→405명), 플랜트(437명→408명)는 1년 새 30~40명 가까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사업부문별 실적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국내건설 총 수주액(164조8757억원) 가운데 토목은 전년보다 16% 줄고 건축은 12.6% 늘었다.

이에 비해 19개사의 건축·주택 부문은 611명에서 652명으로 평균 41명 늘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경영지원(312명→361명) 부문도 동시에 커졌다.

해외사업 직원 수는 기업 규모별로 편차를 보였다. 전체 평균은 1년 새 제자리였지만 1~20위 대형 건설사는 많게는 400명가량 해외 담당이 늘었다. 대형사 위주로 부진한 국내 공공토목 부문의 인

19개 건설사 사업부문별 인원 현황



력을 해외로 돌려서다. 상대적으로 해외 사업 여력이 적은 21위권 이하 중소·중견사들은 리스크가 커진 해외사업에서 인력을 불러들였다.

A사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일시 호황으로 건축·주택 인력이 반짝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주택시장이 움츠러들면서 또다시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간부·임원만 많고 일할 직원이 적은 역피라미드형 인력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9개사의 과장-부장급 간부 비율은 평균 64.5%로, 대리 이하 직원 비율(32%)의 곱절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간부 비율은 2.8%포인트 높아졌고 직원 비율은 그만큼 낮아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신입 채용 감소에 따른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1인당 생산성은 제자리였다. 19개사의 최근 8년간(2008~2015년) 평균 1인당 매출액은 15억4000만원. 2008년 14억6000만원에서 2015년 17억1000만원으로 2억원 넘게 늘었지만 8년간의 매출액 증가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제 1인당 생산성은 감소했다는 평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1년간 건설기업의 인력구조 변화를 보면 업황이 그대로 보인다”며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려면 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호황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